

나주읍성권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든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 투입 도시재생 본격 추진

주민 공청회 열고 국토부 관문심사 통과 등 절차 순조

나주시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읍성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최근 읍성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주민 공청회와 국토교통부의 관문심사를 통과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나주시는 나주읍성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의 비전을 제시해 2016년 신규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단위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나주시 읍성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담겨 있는 단위사업들의 구

체적인 내용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용역사의 설명을 듣고 도시재생전문가의 의견, 질의답변 순 등으로 진행됐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나주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5개의 카테고리에 1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단위사업인 ‘핵심거점개발사업’에는 읍성코아센터·사매기길 특화가로 조성, 고려현종 왕순의 별빛 총총거리 등이며, 연계망 개발사업은 옛이야기를 찾아 살펴보는 고살길·나주천 나들이길, 천원의 화원 등으로 짜였다.

박물관 활성화사업으로는 풍류라도 도심정원축제·문화장터 어울림, 나주읍성 따라파파 등이 있으며, 행복한 삶터 만들기 사업은 천년고도 천 년 삶 터·일자리 방앗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배치돼 있다.

이 밖에도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상가 기반구축·상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특화상가축제 등이 추진된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관광객들 증가에 따른 주민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민과 개발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적기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용,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지양, 코어센터 기능보강, 단위사업 축소조정,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상권개발, 나주만의 핵심사업 개발과 집중투자 육성 등을 주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도 행정의 역할 강화와 규모화된 사업추진, 생활악취 해결, 코어센터의 장소 적합성, 한옥지구 내 건축 어려움 해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나주시는 앞으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나주시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 그리고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전라남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관문심사 결과를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최종안을 제출해 올 연말까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사(확정)를 거쳐 중앙부처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법적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나주시도시재생사업은 내년 초 기본 및 실시계획을 거쳐 단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잠재한 원도심 리모델링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년 목사골’ 나주는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복 전주와 함께 도읍으로 정해진 뒤 천년의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다. 나주읍성은 서울 도성(都城)과 같은 4대문과 객사, 동헌 등을 고루 갖춘 전라도의 대표적인 석성(石城)으로 둘레가 3.7km, 면적은 97만2600여㎡에 이른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우리의 고민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청소년 100인 원탁회의…진학진로 지원 등 시에 요청

나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8개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 3회 나주시민(청소년 100인)원탁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나주고와 나주상고, 전남미용고와 호남원예고, 봉황고와 금성고, 나주공고와 영산고 등 나주시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나주시 교육정책에 대한 발제에 이어 ‘나주교육 진단’과 ‘나주교육 해결 방안모색’을 토론 주제로 삼아 열띤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 원탁회의는 7~8명이 한조로 구성이 돼 원탁별로 퍼실리테이터(촉진자)가 모든 참여자를 빠짐없

이 발언에 참여토록 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은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 학생들은 진로진학 문제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맞춤형 진학진로 지원 ▲직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직업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체험 마련 등을 나주시에 요청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수보편적 교육복지 확산과 함께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원탁회의를 마련했다”면서 “원탁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교육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 새모습 발견한 ‘이야기꾼 강좌’ 종강

7개 명촌마을·혁신도시 답사

나주향교의 굵은 소나무 학교 ‘나주 이야기꾼 강좌’가 빛가람혁신도시 견학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시작한 ‘나주 이야기꾼 강좌’는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에서 주최하고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향교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나주의 7대 명촌 마을과 빛가람혁신도시를 직접 답사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모두 8강이 이뤄졌다.

8번째 강의는 지난달 22일 수강생과 진행자 등 약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전력과 빛가람 전광대,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를 탐방하고, 이순형 박사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질 나주의 미

래’에 관한 강의와 수료식으로 마무리됐다.

‘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이순형 박사는 “자동차와 조선, IT 등 한국경제를 선도해온 산업들이 결집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산업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앞으로 나주가 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전력산업은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에서 누구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대로 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판매도 하는 프로슈머가 될 수 있고, 시민 참여형의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일 11월 정례조회에서 2018년도 국고지원 건의를 위한 현안사업 발굴에 모든 직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2018년 국고 지원 현안사업 적극 발굴”

강인규 시장 정례회서 강조

강인규 나주시장은 11월 정례조회에서 “2018년도 국고지원 건의를 위한 현안사업 발굴에 전직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강인규 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정례조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국비확보 규모는 900억원에 달했다”고 노고를 격려한 뒤 “정부의 재정 순기에 따라 2018년도 국고지원 건의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을 내년 1월까지 발굴해야 하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운데 나주시정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나 신규 역점시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중점 발굴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강 시장은 또 “고대 마한의 중심이었던 나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대내외에 알리는 ‘제2회 마한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제22회 시민의 날’행사를 치르는데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았다”며 “이번 행사에서 미비했던 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 행사는 더욱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 이어 지난달 중순 주연마크 한국대사관의 초청으로 코펜하겐과 헤더슬레브시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나주배의 수출 방안과 함께 축산물 가공 선진화 시설, 가족농부 처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나주시역 약취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 평생학습 홍보·체험 행사 ‘복적’

나주시 평생학습관과 나주공공도서관, 남평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7개 기관이 최근 공동으로 개최한 ‘2016 나주시 평생학습 홍보·체험 행사’에 관람객들이 천연화장품·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함께 오감으로 느끼고 즐겨요’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나주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수공예, 짚스도, 가죽공예, 캘리그라피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자수공예에는 수강생들이 홍보관에서 작품을 직접 설명해 관람객들의 질문이 쇄하기도 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novita is COMFORT

2016.10.04 ~ 2016.11.30

노비타 비데로 욕실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행사비데 구입시 1년치 필터(2개)증정!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www.novita.co.kr

품격1

참 편한 비데

Comfort

NEW

일부

BD-N443(설치비 별도) BD-N433(설치비 별도)

279,000 / 249,000

+ 브레프 파워 액티브 5종

품격2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비데 특가

BD-N430T/A6(설치비 별도) BD-N423T(설치비 별도)

159,000원 159,000원

품격3

새 비데를 할인가!

비데 보상 판매

BD-N433R/S1(설치비 포함)

219,000원

*타사 제품 가능

*설치시 2만원 추가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 515-1144